집에서 따는 '승려자격증'에 공분

日불교계, '재가승려 통신교육' 광고 강력 비판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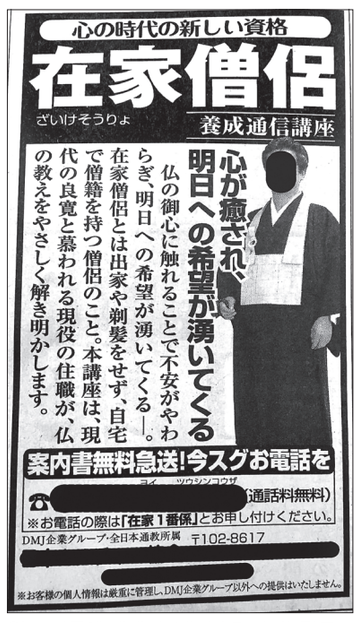
출가자 감소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일본불교계. 출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는 가운데, 통신교육으로 '승려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광고가 신문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광고는 불교계 SNS를 통해 퍼지면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일본에서 통신교육으로 유명한 모 사단법인 산하의 교육프로그램이다. 광고는 "마음이 중요시되는 시대의 새로운 자격"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재가승려(在家僧侶)'를 양성하는 통신강좌로 게재됐다. 광고 내용에는 "재가승려란 사찰로 출가하거나 삭발을 하지 않은 채로, 평소와 같이 가족들과 자택에서 생활하며 승적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현역 주지스님이 근본불교에 기초한 불교의 시작부터 깊은 핵심까지 친절한 불교강좌로 교육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실제 수행으로 참선과 사경, 독경 등의 수행법을 각자에 맞게 선택해서 배우게 된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 중 희망자에게 법명, 도호(道號, 한국의 건당에 해당), 법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재가승려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재가승려'가 된 한 수강생은 수강후기에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고서 매일이 충실해졌다. 이웃에게 법문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등 승려로서의 소중

통신교육으로 유명한 법인서
'재가승려' 교육프로그램 광고
교육자 종단 · 이름 등 안 밝혀
출 · 재가자 모두 회의적 반응



일본 신문에 게재된 '재가승려자격' 광고. 사진출처=페이스북

함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 출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다른 수강생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없는 삶 속에서 '재가승려'의 길을 만났다. 덕분에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후기를 남겼다.

이에 불교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광고사진을 올린 한 스님은 "재가자로서 얼마든지 불교를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구태여 '재가승려'라는 말을 사용한 의미를 알 수 없다. 교육을 진행한다는 주지스님의 종단이나 사찰, 이름도 밝히지 않고서 무슨 신뢰가 가겠는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또 다른 스님은 "20여 년 전 학인으로 수행할 때 봤던 광고가 부활했다"며 오래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스님은 "당시엔 교육을 담당하는 사찰과 주지스님의 사진이 함께 실려서 광고가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광고가 당시 불교계의 노력으로 사라졌으나 최근 평생교육과 통신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반 재가자들 사이에서도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불자는 "포교사 자격 등은 각 종파에서 공인발급하고 있지만, 이 승려자격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재가자는 재가자, 출가자는 출가자로 충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문을 풀고자 직접 해당단체에 무료상담을 받아봤다는 한 불자는 "일시불로 교육비를 낼 경우 6만2000엔(한화 약 67만원)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출가자가 되는데 참 저렴한 비용"이라며 "교육을 마친 후 수료증을 받고, 소위 '승적증명서'를 자택우편으로 받고선 스스로를 승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불교계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통신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단 과거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불교계의 대응에 따라 광고가 철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요크 대성당 선 수행교육 잠정 중단

수년 전부터 기독교 복음주의자 항의 빗발쳐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자치주 요크(York)에 위치한 영국국교회 성당 '요크 대성당(York Minster)'에서 5년 가까이 진행되던 선 수행교육이 결국 중단을 맞았다. 7월 16일 영국 '더 가디언'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항의 끝에 선 수행교육이 중단된 요크 대성당 소식을 전했다.

요크 대성당의 선 수행교육은 매주 금요일 90분간 좌선을 중심으로, 대성당 도서관 건물에서 진행돼왔다. 교육은 요크 대성당 참사회 전 의장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링우드(Christopher Collingwood) 신부가 이끌고 있다.

콜링우드 신부는 스스로 '이중 종교인'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좌선수행과 교육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좌선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을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저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선의 지혜'를 출판, 대성당의 도서부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항의가 강하게 대두됐다. 복음주의자들은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양립할 수 없으며, (불교의) 명상수행을 허용한 대성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영국국교회총회 회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신부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혼합은 '기만적인 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당 중 하나에서 일어난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결국 요크 대성당은 오는 가을부터 일체의 선 수행교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선 수행교육을 최초로 허가했던 전 요크 대성당 주임사제 비비안 폴 신부는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처럼) 이 교육은 새로운 종단이나 종교가 아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대성당에서의 수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성당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한편 교육을 이끄는 콜링우드 신부는 "교육은 잠정적인 중단일 뿐이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400년 만에 공개되는 관음정토

日교토 천년고찰 닌나지 관음당 특별공개에 나서

일본 교토의 천년고찰이자 진언종 대본산으로 유명한 닌나지(仁和寺)에서 약 400년 만에 관음당을 공개한다.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관음당 특별공개를 '산케이 뉴스' '교토신문' 등 현지 언론이 특별 보도했다.

888년 창건된 닌나지는 진언종 오무로파(御室派)의 총본산이다. 100여 년 전까지는 일본의 황족이 출가해 주지를 맡았던 사찰로, 일본불교미술에서 중요한 작품과 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닌나지 관음당은 사찰이 창건되고 약 40년 뒤 처음 세워졌다. 이후 몇 차례의 소실을 겪고, 164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됐다. 본존으로는 11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협시로 부동명왕과 항삼세명왕상이 모셔져 있으며, 삼존불의 주변으로 28부중 등의 신장을 모셔 총 33구의 불상이 법당에 봉안돼


약 400년 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공개되는 닌나지 관음당. 사진출처=엑사이트 재팬

있다. 또 관음당 내부 사방에는 33응신도와 관세음보살구난, 육도윤회도 등의 벽화가 극채색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중세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관음당의 예술성은 일본 내에서도 손에 꼽힌다. 지난해 초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닌나지 특별전에선 관음당의 불단을 1대1로 재현해 전시했다. 당시 관음당이 재현됐다는 뉴스에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전시회에 몰렸다.

닌나지는 2012년부터 6년에 걸쳐 관음당의 해체수리를 진행, 이를 기념해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공개에 나섰다. 관음당은 현재 수행도량으로 사용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관음당은 지난 5월 수리종료를 기념해 한 차례 공개됐지만, 당시에는 불단이 모셔진 일부 불상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공개는 373년 만에 33구의 불상들이 모두 모인 상태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닌나지의 종무 총 집행을 맡는 요시다 세이유 스님은 "재건 당시의 기와와 목재를 최대한 살려 복원했다. 수행도량으로 쉽게 올 수 없는 곳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개의 의의를 전했다.

또 닌나지로 이어지는 전차를 운영하는 라이덴 전차도 특별공개를 기념한 '관음전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관음전차는 천장에서 관음당의 본존인 11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손이 뻗어져 내려오는 장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를 끌고 있다.

닌나지 측은 관음당 공개와 함께 금당, 대장경이 모셔진 경장(經藏) 내부도 특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금당은 옛 교토어소(御所)의 정전이었던 자진전(紫宸殿)을 이축해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불자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닌나지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토의 여름이 관세음보살로 뜨겁다.

박영빈 객원기자


훼불된 채 도로에 버려진 불상. 사진출처=네팔24시

네팔 지방도시서 훼불사건 발생

룸비니 인근 지역, 불상 5구 파괴돼 버려져

부처님이 탄생한 네팔의 지방도시에서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탄생성지인 룸비니와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7월 19일 '네팔리 산사르' '더 히말라얀 타임즈' '네팔 24시'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사건은 네팔 남부 틸롯타마(Tilottama)시에서 일어났다. 탄생성지인 룸비니와는 40㎞정도 떨어진 소도시다. 파괴된 불상들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4차선 도로의 화단에서 발견됐다. 불상들은 시멘트와 석회암을 혼합한 소재로 조성한 석가모니불상으로 모두 개금까지 마친 불상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불상들은 4개월 전 틸롯타마시에서 네팔의 신년을 기념해 사회적, 종교적 화합의 뜻을 담아 조성한 22개의 불상 중 일부로 밝혀졌다.

틸롯타마시 경찰은 "7월 17일 심야를 틈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불상을 파괴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길의 좌우에 있던 불상을 파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길 가운데 화단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던 불상들만 파괴된 것으로 보아,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파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현재 틸롯타마시는 6인의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